



청송심씨 심벌마크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0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3월 31일(토)

2018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 ◎ 일 시 : 2018년 3월 29일 오전11시
- ◎ 장 소 : 중구 퇴계로 18길5(동보성)
- ◎ 참 석 : 재적 16인중 14인 참석

- ◎ 참석자 : 갑보 회장, 부회장(의철, 상록, 상식, 상화, 현근, 찬구, 일용, 민섭, 재면, 정보), 감사(상렬, 상현, 현보)

1. 주요 보고사항

구 분	내 용
연천 4세조 청성백 묘역 계단정비 및 재각 계단설치 등	가. 묘소 앞 중앙 돌계단 철거 및 잔디식재 4세조 청성백 묘소 앞 중앙 돌계단 철거 및 계단주변 철쭉과 소나무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잔디를 식재하여 묘소 앞 전망을 탁트이게 확보 나. 재각 삼문 앞~홍살문까지 돌계단 공사 삼문 앞부터 홍살문까지 재각을 출입 할 수 있는 돌계단 설치 다. 기타 조경공사 재각 및 비각주변에 소나무, 주목, 철쭉 등을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조성
함열 2세조 재실 현판정비 및 위토환수 공적비 설치	함열 2세조 재실 내에 "신건영모재기(新建永慕齋記) 등 9개의 현판이 대부분 부식되고 글씨가 마모되어 선조들이 남긴 기록들이 훼손·소멸될 처지에 놓여있어 이를 복원하고, 아울러 2세조 위토 환수에 공이 많은 언봉과 광택씨의 공적비를 세워 선조들의 미덕이 후세에 길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
5처묘소 2단소 종재실사	2018년도 5처묘소 2단소의 종재를 아래와 같이 전수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도 책자로 발간 가. 조사기간 : 2018. 3. 6~3. 23 나. 조사대상 : 5처묘소 2단소 전체 위토 다. 조 사 자 : 총무이사, 5처묘소 2단소 유사, 광섭이사(총괄) 라. 조사방법 및 조치 5처묘소 2단소의 위토를 현장 방문하여 관리상태 등 현황 조사 후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장정리 및 각 필지별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성사진 등)를 첨부하여 비치 마. 조사결과 별도 "종재실사현황" 책자로 발간

2. 주요 의결사항

부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5처묘소 및 2단소 관리, 장학금 지급 등 사업 실적과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원안대로 의결
회장 보선에 관한 건	2018. 3. 19. 심갑보 회장이 건강문제 등으로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 보선을 실시한 결과, 심대평 고문을 후임 회장으로 선출함 * 후임 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 시작은 2018년 4월 17일에 개최하는 제48차 정기총회일로 정함



청송심씨대중회 제66회 이사회 및 제48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청송심씨대중회 정관규정 제1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임원과 회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17일 (화)
이사회(10:40-11:30), 총회(11:40-12:30)
- 장 소 : 성균관 유림회관(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성균관대 정문앞 ☎ 02-744-0677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7번 마을버스 이용(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하차)
- 회원자격 : 청송심씨 성인
- 지참물 : 신분증 (청송심씨 성인 외 참석 불가)

이사회 부의안건

-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기타사항

총회 부의안건

-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기타사항

2018년 3월 30일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 갑 보

세종28(1446)戊辰 소헌왕후(세종장현대왕실록)

3월 13일) 왕이 말하기를 “내가 德이 없는 사람으로서 君主가 되었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부지런히 할 줄은 알지만은, 어찌 형정(刑政)의 지나치고 어긋남을 면하겠는가, 지금 중궁(中宮)이 질병을 만났으나 치료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니 액운이 번갈아 이른 것이다. 모반과 대역모반(大逆謀叛), 자손이 조부모, 부모를 모살 노비가 주인 모살, 강도 등 형이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사유 면제(免除)하게 하라. ... 생략

15일) 중궁(中宮)의 병이 더함으로써 다시 중 80명을 시어소(時御所)에 모아서 기도(祈禱)로 정근(精勤)하여 밤을 새우게 하고, 世子가 팔(臂)을 불에 태우고, 여러 대군(大君)과 내수(內豎)들도 다투어 서로 팔을 불에 태우다. ... 생략

18일) 명하여 도형(徒刑), 유형(流刑), 부처(付處), 충군정역(充軍定役) 1백80여 인을 놓아주게 하다. ... 생략

24일) 왕비가 수양대군(首陽大君) 제택(第宅)에서 흉(薨)하니, 종친(宗親) 부마(駙馬),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모두 소복(素服)차림으로 들어가 곡(哭)하고 이내 임금을 위문(慰問)하다. 이로부터 성복(成服)에 이르기 까지 매양 아침 저녁으로 곡림(哭臨)하다. ... 생략

7월 16일) (아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축시(丑時)에 소헌왕후의 재궁(梓宮)이 발인하니 왕세자가 대군(大君) 및 여러 군(君)과 각 관사의 관원 1명을 거느리고 시위하다 살곶이 천에 이르니 빗물이 창일하여, 재궁(梓宮)을 유주(維舟:배와배를 서로매어 만든배)에 태워 건넜다. 삼전도(三田渡) 들에서 주정(晝亭)하였는데, 때마침 풍우(風雨)가 크게 일어나서 건널 수 없으므로, 재궁을 돌려 와서 낙천정(樂天亭)에 머물게 하였다. ... 생략

상궁이 임시로 애책안(哀册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애책함을 가지고 일어난다. 전언(典言)이 꿇어 앉아 애책안을 가지고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 꿇어 앉아서 전(奠)의 동쪽에 놓고 상궁이 따라 올라가서 애책함을 가지고 서향하여 안(案)에 둔다. 함을 열어 애책을 읽는다.

소헌왕후 애책문(哀册文)

정통(正統)11년 세차(歲次)병인(丙寅)3월 무진삭(戊辰朔)24일 신묘(辛卯)에 대행왕비(大行王妃)가 별궁(別宮)에서 흉서(薨逝)하여 5월 병신삭(丙申朔)19일 을유(乙酉)에 영릉(英陵)에 장사하니, 예절대로 한 것입니다.

신거(輜車:상거喪車)를 받중에 차비(差備)하고 용순(龍輶:상여)이 출발하니, 밝은 명정(銘旌)은 처량한 바람에 필러이고 흰 일산은 어스름 달에 나부꼈습니다. 풍금(楓禁:대궐)의 깊고 넓은 데를 버리고 백성(栢城:무덤)의 깊숙하고 답답한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상전 하께서는 훌륭한 보필을 갑자기 잃으심을 슬퍼하고 정숙(貞淑)한 의용(義容)이 영원히 가버림을 상심하셔서, 이에 윤음(綸音)을 예문관(藝文館)에서 발표하여 명예를 봉책(鳳冊)에 드날리게 하였습니다. 그 문사(文辭)에는, 하늘과 땅이 덕(德)을 합치니 갖가지 종류가 힘입어 살게 되고, 해와 달이 함께 빛나니 온갖 종류가 밝음을 쳐다 보았습니다. 모의(母儀)의 단정함은 왕화(王化)의 터전 이었습니다. 도산씨(塗山氏:하나라 우왕의 왕후)가 하(夏)나라를 보좌하였으며

태사(太妣:주나라 문왕 왕후)가 주나라를 도왔었습니다. 거룩하신 상제(上帝)께서 우리 성왕(聖王)을 돌보시어, 이에 배필을 지으시고 그 상서를 정하셨습니다. 광대한 저 송토(松土 청송)에 성하게도 정신이 모여져 아름다운 좋은 문벌(門閥)에 석인(碩人:덕이높은)을 탄생하였습니다. 하늘에 비유할 자질을 타고 났으며 반달처럼 생긴 골상(骨相)을 가졌었습니다. 생지(生知)의 재주는 침착하고 아름다웠으며 천성은 온화하고 자애스러웠습니다. 진실로 좋은 배필이 되어 능히 좋은 계책을 나타내었습니다. 숨은 덕행으로 도왔으니 아름다운 법도가 넉넉하였습니다.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더욱 숨은 보좌에 근신하였습니다. 질서가 있게 행동하였으며 첫 닭이 울면 거들 아뢰었습니다. 대련(大練)은 검소하고 규목(樛木)은 널리 퍼졌습니다. 선경(善慶)에 돈독하고 의훈(義訓)에 엄격하였습니다. 전성(前星:태자를 이름)이 빛나고 의란(猗蘭:왕자를 이름)이 향기로 왔습니다. 덕화는 이남에 응성 하였고 교훈은 일국(一國)에 모범하였습니다. 오복(五福)이 갖추어졌으니 만수(萬壽)가 영원하겠는데, 지기(地紀)는 어찌 빨리 사유(四維)에 끊어지며, 월어(月御달을 부리는 신)는 어찌 갑자기 빛을 감추는가, 아 아 슬프다, 처음에 질병을 얻었을 적엔, 기후의 조절을 잠깐 잘못된 줄로 생각하여, 약을 쓰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천수(天壽)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슬픔은 각 비빈(妃嬪)들에게 사무쳐 순사(殉死)해 뒤따르고자 하고, 눈물은 임금의 눈에 어리어 한스러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비(妣: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군신(群臣)들은 그 어머니가 임어(臨御)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아 아 슬프다. 초위가 패쇄 되니 구체에 이끼 끼고, 향렴(香燭)이 닫혀 지니 옥대(玉臺)에 먼지가 났습니다. 옥찬(玉瓊)을 울리는데 소리는 이미 끊어졌으며, 잠이(簪珥)를 벗었는데 정사를 누가 진술 하겠습니까. 예복(禮服)을 한갓 설치했지만, 시일은 쉽사리 가버렸습니다. 옥로(玉露)는 뚝뚝 풀잎에 떨어지고 금풍(金風)은 소슬하게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로(柳輅)구불구불 지나가고 해가(薤歌)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한강(漢江)에 파도치니 상심이 더하고, 음운(陰雲)이 합해지니 기색이 처참 하였습니다. 아 아 슬프다. 현궁(玄宮)을 이미 복정(卜定)했으니 청오(靑烏)가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헌릉(獻陵:태종릉)의 옛 산에 접해서, 가성(佳城)의 세 곳을 정하였습니다.

산은 평풍처럼 호위하여 높고 물은 고리처럼 빙둘러 맑았습니다. 혼령은 자리 잡아, 안정 하소서, 깊은 밤이 별 나지 않고 한평생 날은 새지 못합니다. 끊어진 연기는 송추에 깃들이고 거치른 이끼는 기린석(麒麟石)에 끼입니다. 태고(太古)로 부터 이후로 생민(生民)이 누가 오래 있었겠습니까. 철인도 죽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인자(仁者)도 반듯이 수(壽)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덕은 건강(乾剛)의 큰 법도에 배합(配合)하고 광채는 일림(日臨)의 아름다운 자취에 균등하여, 청사(靑史)에 의탁하여 영원히 전하고 황천(黃泉)에 가셔도 무궁할 것입니다.

19일 영릉(英陵)에 장사하다. 왕세자가 우주(虞主)를 받들고 돌아와서 휘덕전(輝德殿)들어와 봉안(奉安)하고 초우제(初虞祭)지내다.

2018년 대중회 뿌리교육 및 장학금수여

매년 실시하는 뿌리교육은 심문의 젊은 세대들이 선조님의 훌륭한 행적과 문중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뿌리교육을 통하여 종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삼한갑족 명문집안인 청송심문의 빛나는 전통이 후손 대대로 이어져 한층 더 빛날 수 있도록 전국 일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2018년 5월 26일(토) 11:30~18:00
2. 장 소: 주왕산관광호텔 ☎ (054)874-7000-6
3. 참가인원: 약 100명 내외
4. 참가비용: 전액무료
5. 참가범위: 2018년도 선발된 장학생 전원 및 일반 종인 (*기 참가자 제외)
6. 접수기간: 2018. 4. 18~5. 10 장학생 및 일반 종인은 참가신청서 양식을 대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대절버스 탑승배정(탑승자 여행자 보험가입) 및 현지 식사예약 가능함

7. 교 통 편: 버스탑승 신청자는 5월 26일(토) 오전 7시 지하철 서울역 8번출구 앞 (신청서에 버스탑승 여부 기재 선착순 40명에 한함)

*버스 탑승자 외에 장학생 및 일반인은 각자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주왕산 관광호텔 집결(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5)

*장학증서(장학금)는 뿌리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단, 질병이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증빙서류 첨부, 심사하여 지급결정)

8. 행사일정: 11:30 ~ 집결
12:00 ~ 13:00 중식
13:00 ~ 15:30 중대묘소, 만지송, 시조묘소, 만세루, 보광사, 찬경루, 악은공단소, 송소고택
15:30 ~ 17:00 대중회 소개 및 뿌리교육
17:00 ~ 17:30 장학증서수여 및 회장인사
17:30 ~ 18:00 석식
18:00 ~ 해산

(본 행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9. 행사문의: 대중회문화이사 갑택 (02) 2267~7857/ 9339

2018년 3월 30일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갑보



세종장현대왕실록(즉위년1418년) 명나라18년

11월10일 소헌왕후 증전책봉
입금이 원유관(遠遊冠:입금이 조하에 나올때 쓰는 관)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인정전에 나아가니, 백관이 조복(朝服)을 입고 차례대로 서있었다.

진책관(進册官) 평양부원군(平讓府院君) 김승주(金承雋)와 진보관(進寶官) 평양군 조대립(趙大臨)을 보내어, 옥책(玉册)과 금인(金印)으로써 중국 심씨(沈氏)를 책봉하여 공비(恭妃)를 삼았다.

비(妃)가 내전에서 예(禮)를 갖추어 책봉을 받고, 명부(命婦 봉작을 받은 부인)의 조알(朝謁:알현)을 받고 승주와 대립에게 옷의 걸감과 속감을 내려주었으며, 경창부윤(慶昌府尹) 심 징(沈澄)에게 명하여, 전(箋)을 올려 책봉을 사은(謝恩)하게 하다.

그 책문(册文)에 “왕화(王化)입금(입금의덕화)의 기초는 실상 내조(內助)에 힘입음이 있으며 인륜(人倫)의 지극함은 마땅히 이장(彝章)상례(상례)를 구비해야 될 것이다.

이에 휘칭(徽稱아름다움)을 들어 현책(顯册)을 밝힌다. 오직 심씨는 단정(端正)하고 정숙(貞淑)하며, 유순하고 공손하다.

생각이 나라를 근심하는 데 있으며, 항상 경계(敬戒)의 도(道)를 올리고, 마음이 조심하는데 있으며, 일찌기 연안(宴安)의 정(情)이 없었다. 마땅히 함함(咸恒:항상 두루 미치다)에 덕이 짝할 것이요. 풍아(風雅:풍류와 문아)에 아울러 찬미(讚美:아름답고 훌륭한)할만하다.

정사(政事)를 볼 초기(初期)에 있어 육례(禮)의 더함을 엄하게 해야 될 것이므로, 이에 명하여 왕공비(王恭妃)를 삼고 책(册)과 보(寶)를 주니, 더욱 상서(祥瑞:복되고 길 한 날 중전의 흠을 줌)를 맞이하여, 길이 큰 경사(慶事)를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숨은 교화(教化:가르치고 이끌어서)를 펴서, 편안한 모계(謀計:정사를 논해서)를 만년(萬年)까지 전하고, 왕후의 덕을 바꾸어, 큰 경사를 백세(百世)에 전파(傳播)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릉(여주소재,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묘)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이에 그 비(妃)를 세웠다. 군자(君子)의 좋은 배필이니, 신(神)과 사람이 모두 의지한다.

유화(柔和:부드럽게 온화하다)하고 훌륭한 모범이 될 만하고, 선량하고 신중함은 그 몸가짐이다. 많은 복을 주니, 자손(子孫)이 번성(繁盛)할 것이다.

전(箋)에는 “명(命)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은총(恩寵)의 전례(典禮왕실의 의식)를 베풀었습니다. 몸 둘 곳이 없으니, 별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수(分數)에 적당하지 않으니, 한갓 부끄럽만 더할 뿐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자질은 깊고 순미(醇美)하지 못하며, 행실은 유화(柔和)하고 선량하지 못합니다.

내조(內助)로 도와 이루는 데는 평소부터 계명(鷄鳴)의 경계(敬戒)가 모자랐으나, 휘음(徽音)을 이었으니, 감히 인지(麟趾)의 유풍(遺風)을 바라옵니다.

어찌 큰 이름이 덕이 적은 사람에게 잘못 미치게 될 줄은 생각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대개 성지(聖賢성인의 제혜)의 완전한 천자(天資)의 관인(寬仁)한 큰 도량(道量)이라야 왕교(王教)를 행할 것이며, 인륜(人倫)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책문(册文)에 드러내는 이장(彝章)을 보였습니다. 삼가 경계하여 도리(道理)에 어김이 없으며, 뜻은 더욱 승순(承順:윗어른의 뜻에 따름)하는데 전일하고 강녕(康寧)하여 길(吉)함이 많으며, 복은 항상 창성(昌盛)함을 축원합니다.”고하다.

沈영감의 심민첩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살의유머

아재개그

아재개그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저씨'와 '개그'가 합쳐진 말인데요
동음이의어의 말장난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들으니 재미있는 개그!
한바탕 웃고 가세요.
바람이 귀엽게 불면? 분당~!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는? 다~섯!
수박 한통엔 오전 원인데 두통엔? 계보~린!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뭔지 알아? 딸기시럽(실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반성문을 영어로 해석하면? 글로~벌
차 문을 세 개(세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문이 네 개니까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

좋은 글

꼭 읽어봐야 할 좋은 글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

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무거워져 독선을 가리키는지.
두려움이 무거워져 포기를 가르키는지.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고 느낄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 합니다.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우리 靑松沈家 이야기(2)

우리 심가의 성씨 연원 - 청송 심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심 후 섭 (沈厚燮)

중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지난 번 종보에 '우리 청송 심가 이야기'가 나가자 덕천 문중에서 전화가 왔어. 보완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이었어.

첫째, 중대산 선대 묘소의 혈(穴)이 '호랑이가 누워 잠든 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성묘를 할 때에는 이른 아침에 헌관(獻官) 한 사람과 집사(執事) 두 사람 등 서너 사람만 조용히 다녀왔다고 해.

둘째, 시조 묘소의 혈이 '괘등혈(掛燈穴)'이었다는 거야. 등잔을 벽에 걸어 둔 형국이라는 것이지.

마지막으로는 시조 묘소 아래에 있는 만세루(萬歲樓)를 나타낼 때에 '절에 딸린'이라고 표현하면 절의 재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어. 만세루는 절 앞에 서 있지만 절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종중 재산이기 때문이래.

그래, 앞으로는 위의 세 가지를 보완하도록 해야겠구나.

앞으로도 이 종보를 통해 계속 더욱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고 전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성씨 연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아야 하겠지.

우리의 성(姓)은 왜 '심가(沈哥)'이고 본(本)은 왜 '청송(靑松)' 일까?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에는 우리 심가의 성씨 연원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글은 우리 심가의 가장 큰 족보인 <청송심씨대동세보(靑松沈氏大同世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둔 것이야.

沈國名又水名在楚之上蔡汝南府汝水即流
春秋傳云周文王第十子聃季食采於沈其後因以邑爲姓云事文類聚姓氏部云周文王封子時叔于沈其後爲沈氏云又云沈國名臺所封諸說不同

심(沈)은 나라의 이름이고 또 물의 이름이다. 중국의 예전 초(楚)나라 상채여남부(上蔡汝南府)에 있던 나라 이름이고 문수(汶水)의 즉류(即流)인 물의 이름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제10자 담계(聃季)를 심(沈)땅에 채읍(采邑 : 채(采)는 식읍(食邑)이니 즉 봉작식록지(封爵食祿之地))로 정급(定級)하야 그 후 심(沈)을 성(姓)으로 삼았다 하기도 하고 사문류취(事文類聚)라는 중국 고전 성씨부(姓氏部)에 이르기를 주나라 문왕이 아들 시숙(時叔)을 심(沈)에 봉(封)하야 그 후에 심(沈)을 성(姓)으로 삼았다 하기도 하고 또는 심(沈)은 나라 이름이니 대(臺)의 소봉(所封)이라 하기도 하야 여러 사람의 확설이 같지 아니하다.

이 글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심가 연원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우리 종중의 많은 어른들이 깊이 고찰한 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에 실어두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심(沈)씨의 발상한 사적(發蹟)의 사실을 증거할 만한 문헌이 없고 <원류보

(源流譜)>의 청송심씨 장(章)에 이르기를 심충(沈忠)은 고려조에 벼슬이 중윤(中尹)에 이르렀고, 그 아들 공좌(公佐: 또는 현좌(賢佐))라고도 함)는 국자진사(國子進士, 國子監: 李朝改稱成均館)이며, 또 그 아들 수정(守貞)도 국자진사이고, 그 아들은 흥부(洪孚)로 문림랑 위위시승(文林郎衛尉寺丞)이라고 운운하였다. 그러나 <원류보>는 누구의 저술이며 또한 무엇을 근거하고 참고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종인(宗人) 동제(東濟)의 집 고첩(古牒)에 역시 3세의 휘:함(諱)이 있으며 고려초에 진사 현좌(賢佐)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가첩 역시 <원류보>에서 옮겨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을사년 최초로 족보를 만들 때에 상계(上系)가 그리 멀지도 않고 집안에 고관대작이 많이 계시는 처지에 선조의 사적을 고증(考證)함에 있어 어찌 <원류보>의 참고와 동제(東濟)의 가첩을 참고하지 않았을 리 없고 3세의 기록이 전무하여, 문림랑공(文林郎公)으로 시조를 삼은 것을 보면 3세의 휘함(諱)을 상고(詳考)할 수 없으며 또한 참고로 이에 기록하여 후일에 생각하도록 갖추노라.

이 글 뒤에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 종인 상운(相允)씨 가승(家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아래 내용이 나와 있어.

沈忠 高麗所尹 配南陽洪氏 墓中臺山亥龍乾坐合封
子 公佐(一云 賢佐) 國子進士 配坡平尹氏 墓上同合封
子 守貞 國子進士 配礪山床氏 墓上同合封
子 洪孚 文林郎 配咸安趙氏 墓普光山合封
子 淵 閩門祗侯 配坡平尹氏 墓南堂山辰坐上下封

심충(沈忠)은 고려의 소윤이며 배위는 남양 홍씨이다. 묘는 중대산 해룡의 건좌에 합봉하였다.

자 공좌(公佐, 일명 현좌)는 국자진사이며 배위는 파평윤씨이다. 묘소는 위와 같은 곳에 합봉하였다.

자 수정(守貞)은 국자진사이며 배위는 여산 송씨이다. 묘소는 위와 같은 곳에 합봉하였다.

자 흥부(洪孚)는 문림랑이며 배위는 함안 조씨이다. 묘소는 보광산에 합봉하였다.



그림) 중대산 선대 묘소 그림

자연(淵)은 함문지후이며 배위는 파평윤씨이다. 묘소는 남당산 진좌에 아래 위로 모셔져 있다.

이 글로 보면 우리가 시조로 모시고 있는 '흥부' 할아버지의 선대도 밝혀져 있어. 그런데 그 기록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여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는 '흥부'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당 각 성의 족보를 살폈으나 아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고, 중대산에서도 다른 고종(古塚)을 더 찾을 길이 없다고 해.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옛 중국 초나라의 심(沈)이라는 땅에 살게 된 주나라 사람이 그곳 땅 이름으로 성을 삼아 심(沈)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 중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청송(靑松)을 본(本)으로 삼은 것은 이곳 산천이 수려하여 우리 선대들이 이곳에서 오래 살아왔기에 그렇게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구나.

좀더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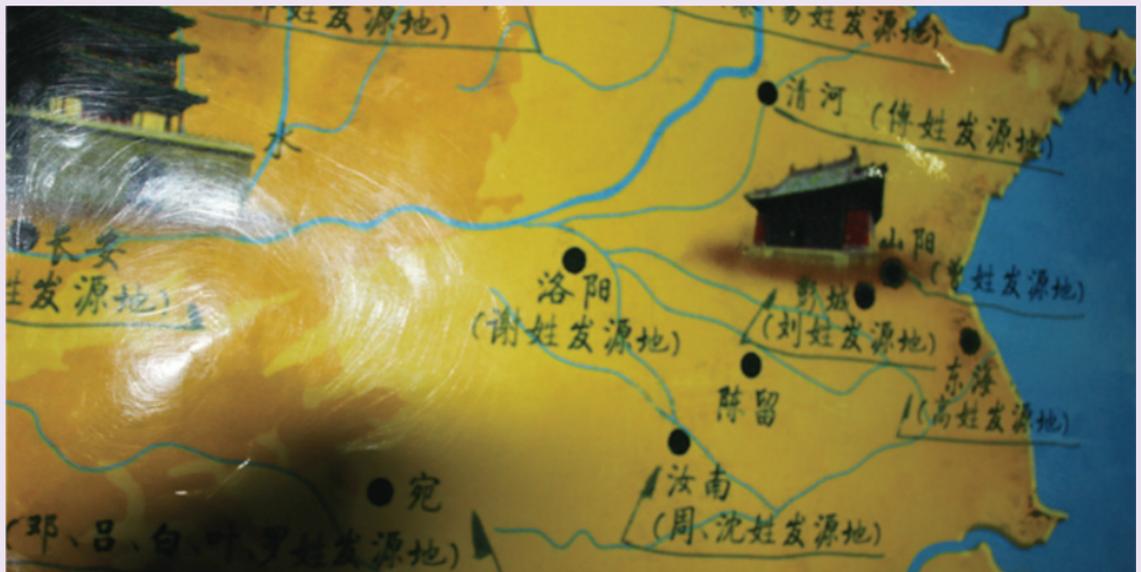


그림) 양자강과는 다른 북쪽의 강가 여남(汝南)에서 주(周)씨와 심(沈)씨가 발원되었다고 나타나있다. (중국 서안 소재 역사박물관에서 심후섭 촬영)

성종대왕의 후궁

淑容 沈氏의 내력과 묘표(墓表)를 찾아서

(숙용 심씨, ~1515)



심재석

문학박사
종보편집위원

북한산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구파발 역에서 대중회 심갑택 문화이사님과 만나 숙용 심씨의 묘표를 찾아갔다.

한 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서 있는 묘표를 보는 순간 감격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묘표가 있다니!

1. 숙용 심씨는 청성백 심덕부의 증손녀이다

청송 심문에서 조선시대 왕비 세 분이 배출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열거하자면 세종 비 소현왕후, 명종 비 인순왕후, 경종 비 단의왕후의 세 분이다.

그런데 조선의 9대 국왕 성종의 후궁인 숙용 심씨에 대해서는 잘 모른 경우가 있기에, 이번 종보에서 다루게 되었다. 숙용 심씨는 안효공 심온의 막내 동생인 심정(沈正)의 손녀이다. 따라서 숙용 심씨는 청성백 심덕부의 증손녀이면서 소현왕후가 고모인 셈이다.

2. 후궁이 된 배경 : 부친이 세조 원종공신이고 국왕의 친위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심문은 조선 개국의 원훈인 청성백 심덕부 할아버님의 음덕으로 조선왕조의 손꼽히는 문벌가문으로 존속하였다. 청성백을 포함하여 13명의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인 것이다. 조선 초기의 청송심씨는 그야말로 권세가였고, 숙용 심씨의 아버지인 심말동은 세조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된 분이였다(『세조실록』 세조 1년 12월 27일).

심말동은 세조대에 궁궐에서 왕명을 전달하던 부서인 액정서(掖庭署)에 근무하였고, 성종대에는 국왕의 친위병인 겸사복(兼司僕)이였다.

겸사복 직책은 국왕의 친위병만큼 용모·학식·연령·체격 등이 중요한 자격요건이 되었다. 심말동은 직책은 모르겠으나 당상관(堂上官)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성종실록』성종 6년 6월 27일). 숙용 심씨의 아버지인 심말동은 국왕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관리였다. 그런 연유로 따님이 국왕의 은총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짐작한다.

3. 숙용(淑容)은 어떤 위치일까

왕비 외에 후궁들은 그 봉호(封號)가 8단계였다. '숙용'은 내명부 품계상 종3품이었다. 성종실록에 '심숙원(沈淑媛)이 이번에 부상(父喪)을 만났으니, 이 예(例)로써 부의(賻儀)를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바(성종24년(1493년) 4월 14일조), 이전에 이미 후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왕 묘지문(墓誌文)에는 성종이 왕비 3인, 후궁 7인을 둔 것으로 나오는데, 숙용 심씨가 내명부의 4품 품계인 '숙원심씨(淑媛沈氏)'로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 후궁 심씨는 성종이 봉어할 당시까지 '숙원'이었다가 후세에 3품의 '숙용'으로 추봉(追封)되었던 것 같다.

빈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
정	종	정	종	정	정	정	종
1	1	2	2	3	3	4	4
품	품	품	품	품	품	품	품

4. 묘표의 일본 반출과 반환

숙용 심씨는 1493년(성종24)이전에 성종의 후궁이 되어 2남 2녀를 낳았고, 1515년(중종10)년 하세하였다. 안타깝게도 숙용 심씨의 묘는 실전 되었다. 그리고 묘소 앞에서 있었던 묘표(墓表)가 일본에서 발견되어 근래 고국으로 귀환하였다.



① 북한산을 뒤로 한채 서 있는 숙용 심씨 묘표, 묘표 뒤편으로 둘째 아들 영산군과 그 자손들 묘역이 있다.

② 묘표 상부의 모습 - 용 전단계의 이무기를 나타낸 것이다.

1) 언제 일본으로 반출되었나? : 묘표의 우수한 예술성으로 인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짐작하고 있다. 이 묘표는 일본 수상을 역임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기념공원 안에 있다가, 400여년이 지난 2001년 후손들에 의해 국내로 반환된 석비(石碑)이다.

2) 환수 과정의 노력들 : 부산일보 동경지사장이었던 최성규씨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후손인 전주이씨 이성군과 영산군과는 즉각 묘비환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미나토구에 묘비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반환을 요청했다.

구청은 오랜 검토를 걸쳐 결국 돌려주기로 결정하여, 2000년 7월에 반환되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모셔져 있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25호이다.

3) 숙용 심씨 묘표의 가치 : 용무늬와 구름무늬가 조각된 이수(螭首) 및 2단으로 구성된 비좌(碑座)를 가진 매우 드문 묘표이다.

① 왕실 유물이다.
② 이수(螭首)의 문양이 아름답다. 이수에는 이무기의 힘찬 움직임과 운문(雲文)이 빼어나게 조각되어 있다.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빨 있는 솟을을 구름무늬 속에 표현한 것과 용 빨과 수염, 용 코의 조각이 뚜렷하고 섬세하다.

③ 이수와 비좌를 갖춘 유일한 비석이다.

④ 대석(臺石) 부분은 보통 형태와는 달리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형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고 한다.

⑤ 묘표 자체도 16세기경에 주로 보이는 형태이다.

비 머릿돌(碑首)과 비 몸돌(碑身), 비 받침(碑臺)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 머릿돌과 비 몸돌이 하나의 돌로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비가 2단의 비 받침에 꽂혀 있는, 이른바 통비(通碑) 형태이다. 비 머릿돌과 몸돌은 백대리석(白大理石)을, 비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⑥ 비수의 후면과 좌우측면은 모두 구름무늬에 둘러싸여 있다.

비 머리에 구름무늬가 사용된 예는 조선 초기부터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묘표의

경우처럼 구름무늬에 용이 조각된 예는 드문 편으로 16세기 석비 문화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⑦ 비 몸돌 앞면 정중앙 세로 방향에는 해서체의 작은 글씨로 '숙용심씨지묘(淑容沈氏之墓)'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묘주(墓主)의 신분을 알려 주고 있다. 글자의 크기는 대략 가로 4.7cm, 세로 4.5cm 정도이다. 후면과 측면에는 어떠한 글씨도 새겨져 있지 않다.

5. 숙용 심씨의 자손들

성종(成宗)의 후궁으로 2남 2녀를 낳았으니 이성군(利城君) 이관(李愼), 영산군(寧山君) 이진(李愼)과 경순옹주(慶順翁主), 숙혜옹주(淑惠翁主)이다.

① 이성군의 행적 : 사람됨이 총명하였다. 따라서 왕자로서는 과격적으로 조정의 일을 처리하는 직책에 임용되었는바, 문소전(文昭殿)·사옹원(司饔院) 등의 도제조를 역임하였다. 이성군은 1552년(명종7) 12월 29일에 별세하니 향년 64세였다.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리곡의 갑향 언덕이다.

② 영산군의 행적 : 영산군은 왕자 시절부터 현명하여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로 인하여 여러 번 역모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후손으로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있다.

③ 영산군의 배위는 청송 심씨, '金陵郡夫人'이다



① 숙용 심씨의 둘째 아들 영산군의 묘 - 영산군의 부인도 역시 청송 심씨 금릉군 부인이다. 사진 좌측에 영산군과 심씨 부인이 합장되어 있고, 우측 묘는 영산군의 후부인이다.

② 근래 전주이씨 영산군파에서 세운 영산군 신도비

심순로의 딸이 영산군의 배위이다. 청송 심씨와는 각별한 인연이다. 영산군은 어머니와 부인이 청송 심씨인 것이다. 그 얼마나 각별한 인연이란 말인가!

숙용 심씨의 의미

우리 청송 심문은 왕실의 울타리였다. 특히 세조대에 공숙공 심희, 관관공 심원, 이경공 심한 등이 '이시애 난'을 진압 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세조대왕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것이다.

숙용 심씨의 아버지는 세조의 원종 2등 공신인 심말동으로, 국왕의 측근에서 활약하였다. 이런 사실이 숙용 심씨가 성종의 후궁이 된 계기일 것이다. 멀리는 조선 개국의 원훈인 청성백의 자손이기에, 그리고 세조대왕의 장인인 안효공의 자손이기에 후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숙용 심씨는 성종대왕의 아들인 이성군과 영산군을 출산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보호막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 아드님이 영민하고 훌륭하여 조선왕실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우리 모두 숙용 심씨를 기억하고 추모했으면 한다.

종회탐방 시리즈 (38)

11세조 성천부사공(成川府使公, 諱: 禮謙) 종회 탐방



심 상 찬

성천부사공종회회장
대종회이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이름도 좋고 경치도 수려한 이곳에 성천부사공 심예겸 선조님을 비롯하여 그 아드님으로 영의정을 지낸 남파상국 심열 등의 음택이 자리하고 있다. 근래 새롭게 건축하여 멋진 이름을 붙인 재각이 웅장하게 반긴다. 이름하여 '예충재(禮忠齋)' 예겸 선조님의 이름에서 '禮' 자를, 심열 선조님의 시호인 충정공에서 '忠' 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재각 사무실에서 종친들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회의 연혁을 말씀해 주십시오

"1953년 ~2003년까지 초대 회장으로 종손인 심재현을 선출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2004년~2009년까지는 2대 회장에 대섭, 2010년~현재까지는 3대 상찬 회장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래 재실을 건립하고 산소 정화사업을 진행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찬 회장 아래 부회장에 성보와 재두가 있으며, 이시에는 상익, 재창, 범준, 화섭, 왕섭, 충섭, 재혁, 상웅, 은섭, 상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천부사공 심예겸의 가계 : 예겸 선조의 아드님인 영의정 열과 그 후손인 경종대왕의 왕비 단의왕후가 단연 돋보인다. 가계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 조선 최고의 재정 전문가 영의정 沈悅, 양평에 정착하다



〈禮忠齋 전경〉



〈재각 내부에서〉

심열 선조의 이름은 돈(惇)이었으나, 인조반정 이후에 悅로 고쳤다. 生父는 충겸. 출계하여 성천부사공 예겸의 아들로 입적하신 沈悅은, 호가 '남파상국'이었다. 그 분의 행적을 번호를 붙여가며 살펴보자.

① 심열선조는 조선 최고의 경제전문가였다. 심열은 광해군 시절, 인목대비의 폐위론에 참가하고도, 인조 21년 영의정까지 오를 정도로 財政에 대한 전문가였다. 심열은 광해군 정권에서도 손꼽히는 제정 전문가였다. 이러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정권이 들어섰어도 중용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재정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였다. 이는 (생부)심충겸도 호조판서로서 재정에 밝았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 집안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② 중국의 청나라와 물물교역의 길을 열었다. ③ 관리들도 굶주리는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하였다. ④ 저서로 [남파상국집(南坡相國集)] 6권을 남기다. ⑤ 신희(申欽) 신도비를 작성하다 : 심열과 같은 시기의 재상이던 신희는 漢學의 4대가로 불릴 만큼 뛰어난 인물이다. 그의 신도비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열의 문장 수준이 높았음을 말해준다. ⑥ 1639년 6월, 燕行使로 중국을 다녀오다. 목적은 進賀였다. ⑦ 3세조 청화부원군 '심용'의 산소를 찾아내어 봉축하였다.



〈묘역전경(맨 위 예겸을 중심으로 조성됨)〉

묘소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묘역을 재정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성천부사공 종회의 연중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 종회와 10월 첫 일요일에 시제사가 있습니다."

◆ 족보의 대가였던 沈熙世 : 심희세 선조의 生父는 심엄(沈淹). 친형이 그 유명한 [海東樂府]의 저자 沈光世이다. 우리 역사를 시로 노래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아가 심광세는 인조반정 이후, 軍政 개편에도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우선적으로 28營을 설치한 후 매 營당 1,000명씩을 배치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등있게 復戶를 지급한 후, 그 밖의 餘結은 大同만 남부하고 잡역을 면제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경제 전문가 집안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 성천부사공의 후예인 단의왕후(端懿王后) : 단의왕후는 세자빈이었다가 33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이후 부군인 경종대왕이 즉위한 이후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좀 더 생존했으면 왕후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의 惠陵이 바로 단의왕후의 陵이다. 단의왕후의 부친은 '청은부원군 영의정 심호'이다. 따님이 왕후로 추존되었기에 영의정에 증직되신 것이다.



〈성천부사공 묘역 하단에 있는 단의왕후의 부친 묘표식. '청은부원군심공지영정'이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원래 '청은부원군영의정심공지묘'라고 해야 맞을 텐데, 묘소 정비 과정에서 누락되고 배열이 잘 못된 것 같음〉

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조돈목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매 시제 때마다 참가하는 종원들에게 여비도 지급하고 해서, 서로 자주 연락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를 매각하여 단종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종회를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문중을 빛낸 종원 및 자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성천부사공 종회의 자랑거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양평 세월리에 선조님들이 정착하여 거주한 이래, 우리 청송 심씨는 큰 세력을 이루면서 땀땀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외지인들이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심 씨들의 터전인 것이지요."

대종회에 바라는 사항은?

"대종회 이사가 2명이므로, 2~3명을 추가로 임명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종회에서 늘 수고하시는데 여러모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생각입니다."

탐방을 마치면서

청송 심문의 유명한 '8謙' 가운데 한 분인 성천부사공 심예겸. 그 선조님을 위시하여 영의정 남파상국 심열, 그리고 경종대왕 왕비 단의왕후를 배출한 명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겸손'의 미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려는 후손들의 모습이 장하다. 대종회 탐방팀을 환대해 주신 창보, 재현, 재혁 등 일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천부사공종회의 발전과 일가들의 화합을 기원하면서 탐방을 마칩니다.

취재 : 심재석(종보편집위원)

동행 : 심언태(대종회 총무이사)

심갑택(대종회 문화이사)

청송심씨세고선(靑松沈氏世稿選) 권지일(券之一)

■ 합문지후공(閤門祗候公)

휘(諱)는 연(淵)이다. 벼슬은 문림랑(文林郎)을 지내신 위위시승(衛尉寺丞) 諱 홍부(洪孚)의 아들이다. 고려(高麗)에 벼슬하여 외직으로 나가 산청현감(山淸縣監)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석담촌(石沓村) 자연동(紫烟洞)에 살았으며 명예와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적이 산청읍지(山淸邑誌)에 실려 있다.

본분을 편안히 여기는 노래

安分吟 (안분음)

공의사위 농은(農隱) 민안부공(閤安富公)이 이 시에 차운하였다.

平生性癖少營爲 (평생성벽소영위)

평소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一任天公處分宜 (일임천공처분의)

모든 것을 하늘의 마땅한 처분에 맡겼노라

薇蕨滿山寧學圃 (미궤만산녕학포)

고사리가 산에 가득하니 차라리 농사일이나 배우리

藤蘿繞屋自成籬 (등라요옥자성리)

넝쿨풀은 집을 둘러 절로 울타리가 되었다네

風無宿約時時到 (풍무숙약시시도)

바람은 약속한적 없건만 때때로 불어오고

外客休言塵世事 (외객휴언진세사)

객이여, 속세의 일을 말하지 마시게

北窓高臥夢軒羲 (북창고와몽현희)

북쪽 창에 높이누워 현희를 꿈꾸나니

* 가장본에는 제목이 실재(失題)로 되어 있다

■ 허강공(虛江公)

諱는 덕부(德符), 자(字)는 득지(得之)다. 합문지후공(閤門祗候公) 諱 연(淵)의 손자다.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지고 우리조선에 들어와 벼슬이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시호(諡號)는 정안(定安)이다.

청허청사(淸虛淸舍)에서 독곡(獨谷) 성석린(成石隣)에게 주다.

世卿何必自延陵 (세경하필자연릉)

대대로 벼슬하는 일 하필 연릉(延陵)에서 비롯하랴

浦繖瓊車不待徵 (포산경거불대징)

화려한 일산과 수레로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노라.

雲護諸胥淸海宇 (운호제서청해우)

구름조차 울타리를 보호하여 온 나라를 밝게 하리니

鼎彝勅字併中丞 (정이특자병중승)

정이에 글자를 새겨 중승까지 아우르리다.

■ 애암공(愛庵公)

휘는 연(淵)이고 자(字)는 성철(成綴)이다. 허강공(許江公) 휘(諱) 덕부(德符)의 손자다.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감찰(監察)을 지냈다.

귀머거리 병어리로 세상에 처함

처세농아 (處世讙啞)

聽必以聰或患煩 (청필사총혹환번)

귀가 너무 밝다면 번다한 것이 걱정이라

言雖謙却務直 (언수겸묵각승훤)

말은 침묵이 싫지만 소중함보다 낫다네.

位士人也生斯世 (위사인야생사세)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세상에 태어났으니

唯唯唯是福門 (유아유롱시복문)

귀머거리 병어리가 복(福)의 문이라네

俗客徒能愛 (속객도능애)

속된 객은 그저 아끼기만 할뿐

幻質大亂眞 (환질대란진)

육신은 진리를 크게 어지럽히네.

三彭互動無專氣 (삼팽호동무전기)

삼팽이 동요하면 전일한 기운이 사라지고

五賊交侵易傷神 (오적교침역상신)

오적이 연이어 침범하면 정신이 쉽게 망가진다네

皇天帝霸傳盃酒 (황왕제패전배주)

황제의 패업은 술잔을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秦唐漢晉變局棋 (진당한수변국기)

진한수당의 나라도 변화무쌍한 바둑판과 같다네

天地曾不踰一瞬 (천지증불유일순)

천지만물도 일찍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거늘

浮生何必苦營爲 (부생하필고영위)

덧없는 인생에 어찌 수고롭게 도모할 것인가?

種梧 (동나무를 심으면서)

庭前栽汝意 (정전재여의)

뜰 앞에 너 오동나무를 심은 뜻은

望有鳳來棲 (망유봉래서)

봉황이 와서 깃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又造琴調妙 (무조금조묘)

또 오묘한 거문고 곡조를 지어서

欲廣舜調兮 (욕광순조혜)

순임금의 곡조에 답하고 싶어서라네.

庭花 (뜰에 핀 꽃)

紅白花自落 (홍백화자락)

을긋불긋 꽃이 절로 떨어지니

春花不久留 (춘화불구류)

봄이 어찌 오래 머물 수 있으랴?

無情前夜雨 (무정전야우)

무정하다 간밤의 비여

雨添昔年愁 (우첨석년수)

한해 시름을 또 더하였구나.

청성백재각 주변전경



홍살문 완공



비각



신천공파중회(회장 윤섭) 백송 4그루 기증



각종 찬조현황 2018. 1. 29 ~ 2018. 3. 27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상욱 캐나다중회장	어비리중회 회장 석문	진천월촌중회 회장 상영	부사공중회 회장 재문	광섭 대중회 이사
중보찬조 50만원 2018년 3월	중보찬조 50만원 2018년 2월	중보, 장학찬조 50만원 2018년 2월	중보,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 1월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10월

임원회비

17년임원회비 50,000	심기백(전남), 심재열(서울) 심호웅(대구)
18년이사회비 50,000	심상경(서울), 심재열(강북) 심상학(서울), 심재익(광주) 심재운(대전), 심극택(경기) 심응하(고양), 심석용(동탄) 심석문(인천), 심석희(경기) 심재균(광주), 심대섭(전북) 심재경(전북), 심홍섭(화성) 심재석(인천), 심재용(서울) 심동섭(진주), 심기섭(서울)

장학찬조

100,000 신천공파중회(회장 윤섭)

중보찬조

1,200,000	강규식
500,000	어비리중회(회장 석문) 심상목(캐나다)
100,000	심상학(쌍문동) 신천공파중회(회장 윤섭) 심언촌(수원)
60,000	심강채(전남)
50,000	심상경(서울)
20,000	심호웅(대구)

2017회계년도 정기감사 실시

대중회 정관 제28조 2항에 의거 2017회계년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 오후 6시

◎ 장 소 : 대중회 회의실

◎ 감사내용

- 2017년도 업무실적과 결산 및 청성백 재각회계
- 향후 유동자산 확보 및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 재무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 승진

대중회 부회장 정보의

장남 揆敏과 子婦 鄭惠京

2018년 3월 1일부터

子 : 신현고등학교 교장

子婦 : 인천시교육원 장학관으로 승진발령



심재윤 증보편집위원

코리아타임즈 편집국장으로 승진

안효공파 부평공종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7일 22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공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입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 하였다.

◇ 임원선출

고 문: 진택, 상혁, 상연, 상호, 필섭

회 장: 구섭

부회장: 정택

감 사: 상선, 상정

총 무: 향섭



안효공파수사공 함안종회 임원선출

고 문: 석보, 형보

회 장: 흥보

총 무: 정보

재 무: 인보

관 리: 규관

감 사: 희보

송금안내

임원회비 · 증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경종대왕비 단의왕후

3월 8일 경종

대왕비 단의왕

후 300주년 기

신제가 전주이

씨와 왕후 청송

심씨 후손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 되었다.

아헌: 昌輔 (성천부사공)



안효공 기신제

2월 9일(음12,

24) 오후 7시

안효공 기신제

가 수원시 이의

동 재실에서 경

향각지의 후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 되었다.

초헌: 명옥 회장 아헌: 용진

중헌: 양섭(사인공회장)

대축: 상흥(김포) 집례: 영섭 총무이사



공속공 기신제

2월 27일(음1,

12) 오후7시 공

속공 기신제가

과주시 영대리

재실에서 경향

각지후손 4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봉행 되었다.

초헌: 규훈(종손) 아헌: 상열(판관공회장)

중헌: 흥섭(효창공회장)

대축: 흥섭(대중회 이사) 집례: 광섭 총무이사



충익공 배위 기신제

3월 7일(음1,

20)오후7시 충

익공배위 기신

제가 옥천군 아

신리 재실에서

각지 후손 3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봉행 되었다.

초헌: 재욱 아헌: 형찬 중헌: 흥섭

집례: 흥섭(효창공회장) 대축: 양섭(사인공회장)



청보산악회 산신제

3월4일(일)오

전11시 청보산

악회(회장 인

보)원 20여명은

아차산에서 산

악회원들의 건

강과 안전한 산행을 비는

산신제를 지내고

회원들의 단합과 청송심문을

더욱 빛내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인수부윤공파 정기총회

2018년도 인수부윤공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춘향일시: 2018. 5. 8 (음력 3. 23) 11:00

제향 후 총회를 개최합니다.

- 총 회: 2018. 5. 8 (화) 12:00

- 장 소: 남양주시 오남읍 양자리 319,

망세정공 재실

- 안 건: 2017년도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기타 증무에 관한 건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총회 회장 심 정 구

기타문의: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14

(청송빌딩 6층) ☎ 02) 401-7377

공속공종중(회장 웅섭)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한글해설문 서예 작품인 12폭 병풍을 연천 청성백 재실에 기증하였다.



대중회에서는 3월 6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대중회소유 5처2단소의 증제실사를 완료하였다.



3월 22일 현령공종회(회장 동섭)와 캐나다종회(회장 상욱)에서 대중회를 내방하여 대중회 발전 방향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캐나다종회 상욱회장은 증보찬조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공지사항

1)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증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3)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4)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